

송진우선생 추모 특별강연회

기 념 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3시
- 장소 : 중앙고등학교 대강당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인 사 말 씀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에 찬연하게 빛나는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 중앙고등학교에서 김학준 교수님을 모시고 중앙학교 교장으로서는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평생 항일독립과 민주건국을 위하여 몸바치신 고하 송진우선생에 관한 특별 추모강연을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고하선생은 대학이 없던 시절 조선 최고의 사학인 중앙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시어 학감과 교장을 역임하면서 젊은 학생들의 민족혼을 고취하고 학생조직을 정비하여 현상윤선생, 김성수선생, 최남선선생, 최린선생 등과 함께 민족의 함성을 만방에 울린 3·1운동을 주동하신 분입니다. 고하선생께서 수년간 기거하셨던 서울 종로구 계동 1번지 중앙학교의 숙직실은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집념으로 뭉친 청년지식인들과 애국심이 충만한 학생들과 주요 종교를 제휴하여 국권회복의 기치를 높이 든 민족의 열이 서린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고하선생은 3·1운동의 배후인물로 체포되어 종로경찰서에서 지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되었습니다. 1921년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발족하자 그 초대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서울 종로구 원서동 74번지에 처음으로 사저를 매입하여 1945년 12월 30일 불의의 흉탄에 서거하실 때까지 24년간 거주하셨습니다. 매일 인력거를 타고 지금의 창덕궁길을 따라 광화문의 동아일보사까지 왕복하셨습니다.

고하는 정부가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진 채 명실공히 2천만민중의 등불이었고 국내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진전이 전연 보이지 않자 일제의 질곡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하는 순종황제의 인산날인 1926년 6월 10일을 기하여 또한번 꺼져가는 민족혼에 불을 지필 대규모 거사를 계획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평생의 동지 위당 정인보선생에게 의뢰하여 고종황제의 거짓 유칙을 만드는 모의를 계획했습니다. 당시의 파다한 소문대로 고종이 일제에 의하여 독살되었음과 이 원수를 꼭 갚아달라는 고종의 유칙을 비밀리에 보관해온 고종의 며느리 순종황제비가 이를 친정오빠인 윤덕영에게 맡겨놓았다가 이제 순종의 인산날 비로소 공개하면서 그 책임을 느껴 윤덕영이 자살을 하고자 한다는 줄거리의 모의를 했습니다. 고하는 이렇게라도 일을 꾸며 민중의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중앙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하는 한편 동아일보의 호외 발행 준비

를 마치고 대비하고 있었으나 윤덕영의 변심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종황제유칙위작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미 행사가 준비된 중앙학교 학생들은 예정대로 종로 길을 행진하면서 인산날 목이 터지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6·10만세운동은 가장 희생자가 많은 중앙학교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고하선생은 3·1운동으로 인하여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물론 중국, 노령, 만주, 미주, 유럽 등 해외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을 연결하는 국내의 구심점으로서 줄기찬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일체의 회유나 협박을 물리치고 해방전후 일제의 통치권 이양제외도 거부한 채 광복 후에는 민주건국을 위하여 진력했습니다. 동아일보가 폐간된 이후에는 원서동과 계동 길을 산책하면서 중앙학교에 들려 선생께서도 건축현장에서 직접 돌을 날랐던 본관의 석조건물을 보면서 옛일을 회상하곤 하시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그날부터 원서동 골목은 고하를 만나 나라의 장래를 논의하려는 지도자들로 매일 붐비었고 고하를 따르는 국민들이 좁은 골목길을 메웠습니다. 고하는 현재 남아있는 원서동 74번지 사랑채에서 정치지도자들과 무수한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나라세우기에 진력하셨습니다. 그러나 1945년 12월 30일 새벽 고하선생님은 이 사랑채에서 괴한의 흉탄에 서거하시었습니다.

김학준 교수님께서 중앙학교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과정에서 고하선생이 담당하신 역할에 대하여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사장소대여와 기타 행사에 도움을 주신 중앙고등학교와 중앙교우회 및 관할 종로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